

사랑이 희망입니다.

KRIVET Issue Brief

2018

159호

발행인 나영선 | 발행일 2018년 12월 27일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다문화 청소년의 미래 직업 및 진로 준비는 어떠한가?

-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의 대다수는 대학 진학보다 고교 졸업 후 먼저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이러한 이유로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함.
-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내용에 대해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음.
- 다문화 청소년의 57.9%가 직업진로를 결정하였지만, 희망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는 보통 수준에 불과해 직업진로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실정임.
- 다문화 청소년은 미래 직업(창업)을 위한 준비로 자격증 취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는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과 다문화에 대한 교사, 친구들의 이해를 꼽음.

| 주 |

이 글은 '김기홍 외(2018),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일부 내용을 발췌, 재구성함.

| 각주 |

1) 국내 출생 2,290명, 중도 입국 311명, 외국인 자녀 347명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다문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직업진로지도와 상담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이 증대되고 있음.

- 다문화 가정 자녀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약 116,000명으로, 향후 학령기 다문화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6년 현재 특성화고에는 2,948명의 다문화 학생¹⁾이 재학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29.3%를 차지함.
-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 추세와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음.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합한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이중 언어 및 다언어 사용자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함.
- 다문화 청소년의 미래 직업과 진로계획 실태를 분석하여 직업진로지도와 직업교육훈련 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다문화 청소년 직업교육훈련 지원 실태조사(2018)」

- 분석 대상: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387명(특성화고등학교 319명, 마이스터고등학교 24명, (위탁형)대안학교 4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02 학교 선택 이유 및 전공 만족도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취업하는 것을 선호함.

- 현재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하고 싶어서(41.3%)'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내가 원하던 분야라서(18.6%)',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8.3%)'의 순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하고 싶어서'가 각각 44.2%, 50.0%의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에 반해, (위탁형)대안학교는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29.5%)'의 비율이 높아 학교(전공) 선택의 이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졸업 후 바로 취업하고자 하는 요구가 직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이기 때문에, 학교의 충실한 직업진로지도와 직업교육훈련의 강화가 필요함.



KRIVET 모바일용

〈표 1〉 학교 선택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위탁형)대안학교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하고 싶어서	41.3	44.2	50.0	15.9
내가 원하던 분야라서	18.6	18.8	25.0	13.6
가정 형편 때문에	4.1	3.1	8.3	9.1
성적 때문에	7.8	9.1	0.0	2.3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8.3	6.0	0.0	29.5
취업과 진학을 동시에 같이 하려고	4.9	5.0	0.0	6.8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4.9	3.4	12.5	11.4
선생님이 가라고 해서	3.4	3.1	4.2	4.5
친구가 가자고 해서	4.4	4.7	0.0	4.5
기타	2.3	2.5	0.0	2.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 $\chi^2=57.375^{***}$, $*** p<.001$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전공 내용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음.

- 전공계열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직업계 고등학교 다문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음.
 - 전공계열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만족하는 편임(40.6%)', '보통(35.7%)', '매우 만족함(16.3%)', '별로 만족하지 못함(5.9%)', '전혀 만족하지 못함(1.6%)' 순으로 나타남.
 - 다만 전공 만족도에 대해 학교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이는 학교의 교육 여건이나 환경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지원이 필요함.

〈표 2〉 전공 만족도

(단위: %, 점/5점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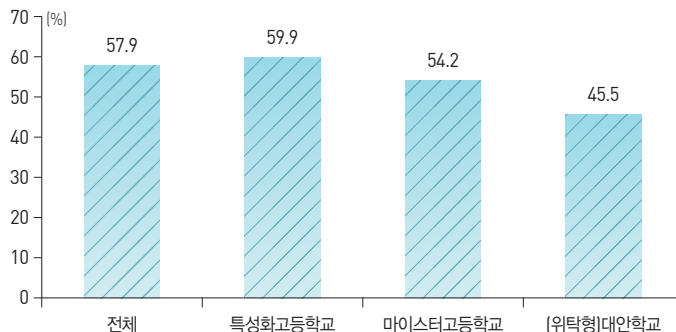
구분	전혀 만족하지 못함	별로 만족하지 못함	보통	비교적 만족하는 편임	매우 만족함	합계	평균
전체	1.6	5.9	35.7	40.6	16.3	100.0	3.64
특성화고등학교	1.6	5.6	36.4	40.8	15.7	100.0	3.63
마이스터고등학교	0.0	12.5	12.5	33.3	41.7	100.0	4.04
(위탁형)대안학교	2.3	4.5	43.2	43.2	6.8	100.0	3.48

주 | $F/t=3.321^{*}(b>c)$, $* p<.05$

03 미래 직업 및 진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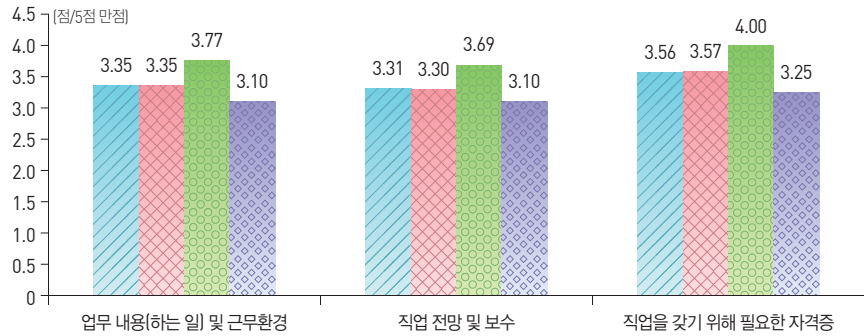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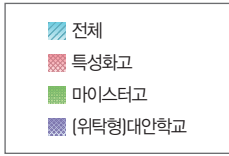
다문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직업진로는 결정하고 있지만, 희망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에 불과함.

- 직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의 57.9%가 앞으로 하고 싶은 직업을 결정한 상태임.
 - 희망 직업을 결정한 다문화 청소년은 특성화고등학교가 59.9%로 가장 많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54.2%, (위탁형)대안학교는 45.5% 순임.
 - 희망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나의 적성과 흥미를 몰라서(46.6%)',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적어서(17.2%)',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선택하기 힘들어서(16.6%)' 순으로 나타남.



[그림 1] 희망 직업을 결정한 비율

- 희망 직업에 대한 인지 정도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3.56점)’, ‘업무 내용(하는 일) 및 근무환경(3.35점)’, ‘직업 전망 및 보수(3.31점)’ 순으로 잘 알고 있음.
- 희망 직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는 마이스터고등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 (위탁형)대안학교 순으로 높음.



[그림 2] 희망 직업에 대한 인지 정도

주 |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①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의 평균값을 제시함.

-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에 대해서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이 44.4%로 가장 많고, ‘졸업 후 바로 진학(27.4%)’, ‘취업과 동시 진학(12.7%)’ 순으로 나타남.
-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각각 54.2%, 47.3%로 가장 많은 반면, (위탁형)대안학교는 ‘졸업 후 바로 진학’이 63.6%로 가장 많음.

표 3) 졸업 후 계획

(단위: %)

구분	졸업 후 바로 취업	졸업 후 바로 진학	취업과 동시에 진학	창업	군 입대	기타 계획 없음	합계
전체	44.4	27.4	12.7	1.8	5.4	8.3	100.0
특성화고등학교	47.3	23.5	13.2	1.6	5.6	8.8	100.0
마이스터고등학교	54.2	12.5	4.2	8.3	12.5	8.3	100.0
(위탁형)대안학교	18.2	63.6	13.6	0.0	0.0	4.5	100.0

주 | $\chi^2 46.217^{***}$, $*** p < .001$

다문화 청소년들은 미래 직업(창업)을 위한 준비로 자격증 취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각주 | 2) 현장실습 포함
3) 한국어, 외국어 포함

- 자신의 미래 취업(또는 창업)을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 취득(45.5%)’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학교 공부(22.0%)’, ‘관련된 일 체험²⁾(13.4%)’, ‘어학 공부³⁾(12.7%)’ 순으로 나타남.

표 4) 취업(또는 창업)을 위한 준비

(단위: %)

구분	학교 공부	자격증 취득	관련된 일 체험	어학 공부	특별히 하는 일 없음	합계
전체	22.0	45.5	13.4	12.7	6.5	100.0
특성화고등학교	23.5	45.8	13.2	10.7	6.9	100.0
마이스터고등학교	8.3	45.8	20.8	12.5	12.5	100.0
(위탁형)대안학교	18.2	43.2	11.4	27.3	0.0	100.0

주 | $\chi^2 16.580^*$, $* p < .05$

04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교육 수요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지원과 주변인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임.

-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초학습능력(국어, 수학, 영어) 향상 지원(28.7%)’, ‘선생님, 친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27.4%)’, ‘한국어 실력 향상 지원(22.5%)’, ‘다문화 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지도(21.4%)’ 순으로 응답함.

- 특히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기초학습능력(국어, 수학, 영어) 향상 지원'이 41.7%로 높게 나타났으며, (위탁형) 대안학교는 '한국어 실력 향상 지원'이 63.6%로 높음.

〈표 5〉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야

(단위: %)

구분	한국어 실력 향상 지원	기초학습능력 향상 지원	선생님, 친구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 배경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지도	합계
전체	22.5	28.7	27.4	21.4	100.0
특성화고등학교	17.9	30.1	30.1	21.9	100.0
마이스터고등학교	8.3	41.7	29.2	20.8	100.0
[위탁형]대안학교	63.6	11.4	6.8	18.2	100.0

주 | $\chi^2=52.478^{***}$,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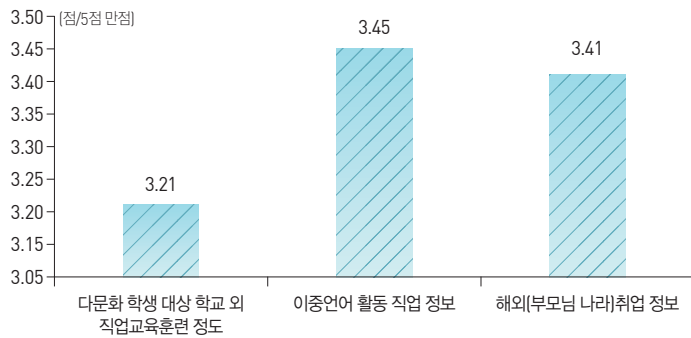
- 희망하는 학교 수업 형태로는 다문화 학생만 별도로 수업하기보다는 모두 같은 반에서 수업하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음.
 - '기초교과', '생활교양', '전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모두 같은 반에서 수업'하길 희망한다는 의견이 각각 78.6%, 79.1%, 82.2%, 84.0%로 절대 다수임.

〈표 6〉 희망 수업 형태

(단위: %)

구분	기초교과	생활교양	전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모두 같은 반에서 수업	78.6	79.1	82.2	84.0
일부 교과는 다문화 학생만 별도 수업	17.8	17.8	15.0	11.9
모든 교과를 다문화 학생만 별도 수업	3.6	3.1	2.8	4.1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진로 및 직업 준비 시 필요한 정보는 '이중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3.45점)', '해외(부모님 나라) 취업에 대한 정보(3.41점)',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 외 직업교육훈련 정보(3.21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진로 및 직업 준비를 위한 정보의 필요 정도

주 | 각 문항을 5점 척도(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의 평균값을 제시함.

05 시사점

- 다문화 청소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지원이 필요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내적 동기를 강화하고, 진로 탐색 및 진로설계 등 단계별 진로지원이 요구됨. 이를 기반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직업세계와 노동시장 진입 시 고려할 수 있는 취업 분야를 다양하게 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 즉 이중 언어, 다문화 이해(다문화 감수성) 등을 살린 직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지원을 위한 전담 교원이 필요함. 이에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전담교원을 양성하고, 이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김기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